

#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120분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명	

##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 1]이 60점, [문항 2]가 40점입니다.
2.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십시오.
3.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십시오(연필, 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4.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십시오(수정 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수정액 불가).
5.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란에 작성하고, 답란 밖에는 작성하지 마시오.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각 문항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쓰시오.
5.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십시오.
6.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 논술고사(인문계열)

**[문제]** 능력주의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는 토론 상황이다. 여기서 능력주의(meritocracy)는 지능과 노력을 통해 얻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지위나 보수가 주어지는 체계를 의미한다.

**[문항 1]** <다음> 중 하나의 주장을 택한 후, 아래의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1,000자±100자, 60점)

< 다 음 >

주장 1: 능력주의를 찬성한다.

주장 2: 능력주의를 반대한다.

< 조 건 >

1. 제시문 (가)~(바) 가운데 세 개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
2. 조건 1에서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세 개를 활용하여 반론을 제기할 것.
3. 반론에서 제기된 논거들을 각각 재반박하여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것 (조건 1에서 활용한 논거를 반복하지 말 것).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문항 2]** 제시문 (사)의 [자료 1]~[자료 4]를 활용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600자±60자, 40점)

< 조 건 >

1. [자료 1]~[자료 4] 중 [문항 1]에서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두 개 선택할 것.
2. 선택한 자료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

## <제시문>

(가) 1870년대에 영국에서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공무원을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의해 선발하는 정실주의가 폐지되었다. 특히 산업혁명 이래 영국에서는 군대를 비롯한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정실이나 뇌물, 상속이 아니라 능력에 의해 선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마이클 영(Michael Young)의 저서 『능력주의』에 따르면 ‘능력’은 ‘지능(IQ)+노력’이다. 그에 따르면 토지는 신분제도의 토대를 이루고, 기제는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을 만든다. 능력주의에서는 교육이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다리 구실을 한다.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능력에 따라 사회에서 대우를 받는다. 높은 능력을 쌓은 사람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능력주의는 지능검사가 과학화됨에 따라 날개를 달았다. 지능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인생을 산다. 학생들은 11세에 실시한 지능검사를 기준으로 지니아 학교(IQ 50-80), 현대식 중등학교(IQ 81-115), 그래머스쿨(IQ 116-180), 기숙형 그래머스쿨(IQ 125-180)에 진학한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엘리트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사회 구성원은 상위 5%와 하위 95%의 두 계급으로 나누어진다. 높은 지위의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무능력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다. 능력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운이 개입할 여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부가 자신의 성공 일부를 타인과 함께 나눌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마이클 영은 책에 등장하는 ‘첼시 선언’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며 이를 비판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며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가 지능과 교육, 직업과 권력만이 아니라 그들의 친절함과 용기, 상상력과 감수성, 공감력과 관대함으로 평가한다면 계급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아버지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진 짐꾼보다 과학자가 더 우월하고, 장미 재배에 놀라운 솜씨를 지닌 대형 트럭 운전자보다 상 받는 일에 비상한 기술을 가진 공직자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고등학교 『통합사회』, 『사회·문화』 활용

(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에게 자신의 정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보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는 사회적 재화의 정의로운 분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재화 분배의 형평성이 객관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구성원의 불만은 높아지고 사회는 불공정해질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몫을 돌려주는 정당한 기준이 다양하기에 다수가 만족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경우 사회적 약자는 배려될 수 있으나, 이것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결과에 따라 분배할 경우 구성원 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기 쉽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재화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의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한다. 자유주의자인 노직(Robert Nozick)은 공정한 분배의 기준을 무엇보다 개인의 자격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즉 필요나 결과와 같은 기준이 아니라 개인이 그 분배를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갖추었느냐가 기준이 된다고 본 것이다. 노직은 로크(John Locke)의 자기소유권의 원칙에서 출발하여 개인들이 자신의 몸에 지닌 재능이나 노동력과 같은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자유롭게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의 능력에 따라 권리를 갖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았다. 재화의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소유권을 누릴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 소유권은 정의로운 것이며, 바람직한 사회는 이런 개인의 권리를 자유롭게 보장해주는 사회다. 물론 취득과 양도의 과정이 정의롭지 않다면 이를 통해 얻은 소유권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노직의 근본 전제는 개인이 지닌 개별성, 다시 말해 개인의 자유를 불가침한 것으로 보고,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독립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중요하다는 데 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활용

**(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수준 높은 연구로 널리 알려진 과학기술자 10여 명을 선정하여 과학기술 진흥기금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유하여 사회학자 머튼(Robert K. Merton)은 저명한 과학자가 무명의 과학자에 비해 많이 보상받는 현상을 ‘마태 효과(Matthew Effect)’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이미 상당한 명망을 획득한 과학자는 계속해서 유명해지지만, 그렇지 못한 과학자는 계속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연구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지원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면 과학계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지원에서 소외된 과학자들의 사기 저하와 과학의 불균형발전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일반 시민은 우수한 과학자의 연구성과가 과학자 개인의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편적인 수혜에 주목한다. 과학계의 불균등한 보상체계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과학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는 과학적 발견은 극소수의 과학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과학계의 성과가 일부 저명한 과학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400명의 과학자가 있다면 그 수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20명, 즉 5%의 극소수 과학자가 전체 과학적 성과물의 절반인 50%를 생산한다. 과학적 성과물은 일부 과학자에게 집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편중의 정도가 심화한다. 이러한 연유로 과학기술이 발전한 국가는 자국의 과학자는 물론 세계의 우수한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 과학 메달 등과 같은 다양한 포상과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활용

**(라)** 많은 종의 개미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미 삼켜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먹이도 공유한다는 사실이다. 공동체의 어느 구성원이든 먹이를 달라고 요청하면 나눠주는 것이 개미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다. 종이 다르거나 서로 적대적인 개미끼리는 우연히 만나더라도 서로를 피한다. 하지만 집단이 같거나 같은 군집에 속하는 개미끼리는 서로에게 접근하여 더듬이로 몇 가지 동작을 교환한 다음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상대방에게 먹이를 요청한다. 요청받은 개미는 거절하는 법이 없다. 아래턱을 열고 적당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 배고픈 개미가 핥아먹을 수 있는 투명한 액체 방울을 게워낸다. 개미의 소화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뒤쪽에 있는 소화관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앞쪽에 있는 소화관은 다른 개미를 위한 것으로 사용된다. 만약 먹이를 충분히 먹은 개미가 다른 동료에게 나눠주기를 거절한다면 그 개미는 심지어 적보다도 나쁜 취급을 받게 된다. 만일 동족이 다른 종과 싸우고 있을 때 그런 식으로 거절했다면 그 탐욕스러운 개미는 적보다 격렬하게 공격당한다.

종의 수가 천 개를 넘고 개체 수도 엄청난 개미는 같은 개미집이나 군집의 구성원끼리 경쟁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종들 사이의 전쟁이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전투 중 어떤 잔혹 행위가 자행되더라도 공동체 내에서 습성화된 자기 헌신은 지켜지며, 나아가 자기희생도 빈번하게 발휘된다. 만일 어떤 개미가 적에 속한 다른 개미에게 먹이를 주었다면, 그 개미는 적의 동료에게도 친구로 대접받는다. 잘 닦인 통로와 아치형의 회랑, 널찍한 곡물 창고와 같은 놀라운 건축물, 알과 애벌레를 돌보는 합리적인 방식, 개체들의 용기와 우수한 지능, 이 모두는 개미가 고단한 삶의 단계마다 이런 습성을 실천해서 얻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이와 같은 개미의 특징은 인간 관찰자조차 놀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사회체계를 낳는 토대가 되었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활용

**(마)**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로 미국 하위 40%의 자산과 맞먹는 부를 소유한 세계적 갑부인 빌 게이츠(Bill Gates)의 성공을 얘기할 때마다,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그의 재능과 대학을 중퇴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을 선택한 그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이 거론된다. 그러나 그의 사회적 성공 이면에 고위 금융인이었던 외조부, 변호사였던 아버지, 교사였던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종종 간과한다. 특히 개인의 가치와 자기 주도권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는 성공한 개인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을 부차적 요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활동과 지위는 사회화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화 과정에서 아이들은 무엇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인지를 익히게 되며, 문화나 사회, 미래를 바라보는 특정한 성향을 형성하게 된다. 또 무엇이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고 용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개인은 그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인간의 사회화 과정은 사회학뿐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다. 근래 많은 사회학자와 교육학자는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사회 계층적 지위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 Bourdieu)에 의하면 개인적 취향과 문화 활동, 언어 능력, 예절 등은 어린 시절 가정의 양육과정에서 체현되며, 이러한 개인적 성향과 문화적 특성은 성인이 된 이후 각기 다른 문화적 역량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학교라는 제도가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일반적 관념과 달리 실제로는 각 학생에게 주어진 가정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문화적 격차와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나아가 이러한 불균등한 조건을 사회가 수용하도록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정치와 법』 활용

**(바)** 연극 「사려 깊은 주인 모시기」는 17세기 스페인의 대표적 극작가인 로페 데 베가(Lope de Vega)의 작품이다. 이 연극의 주인공 페드로는 부유한 부르주아 계급의 젊은이였다. 그는 세비야 여행 중에 레오노르라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반해 구애했으나, 그녀는 혼인을 통해 지체 높은 귀족으로 신분 상승을 꿈꾸었기에 거들떠보지 않았다. 페드로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고귀한 신분의 귀족이라고 속였으나, 재산을 탕진하여 더는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 없게 되자 마드리드로 도주했다. 레오노르는 그가 정말로 지체 높은 귀족인지 확인하기 위해 쫓아왔다. 페드로는 우연한 기회에 고귀한 신분인 팔마 백작의 비서가 되었고, 그에게 세비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팔마 백작은 고귀한 귀족처럼 행세하도록 그를 도왔고, 나중에는 기사단 의복을 그에게 수여하며 진짜 귀족으로 만들어줌으로써 레오노르와 결혼하게 해주었다.

페드로의 무모하고 부정직한 행위를 지켜본 당시 관객은 이 연극의 행복한 결말에 즐거워하거나 그의 성공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낼 수 없었다. 연극 제목의 ‘사려 깊은’이라는 용어는 페드로의 입장에서 팔마 백작이 사려 깊다는 뜻이지만, 결점으로 가득 찬 페드로를 그저 자신의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고귀한 신분의 귀족으로 만든 그의 전횡에 대한 방어적 표현이기도 하다. 17세기 스페인 사회에서 신분 상승이 간혹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유지하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였다. 당시 지배계층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위협하는 행위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서민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했다. 이 연극은 낭비벽이 심하고 불성실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인물의 예외적인 신분 상승도 기존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다면 권력자의 마음 먹기에 따라 일어날 수 있었던 당시 스페인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고등학교 『세계사』, 『사회·문화』 활용

(사) [자료 1]~[자료 4]는 능력주의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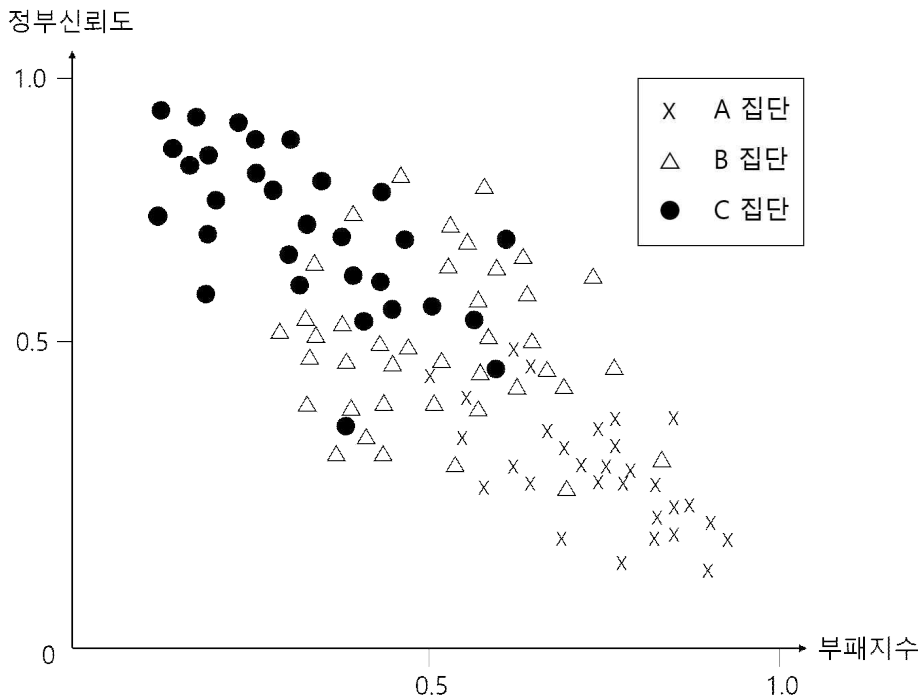
[자료 1]

<자료 1-1>은 전 세계 100개국의 공공 조직 운영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다. 그 결과에 따라 100개국을 A, B, C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자료 1-2>는 '부패지수'를 x축으로, '정부신뢰도'를 y축으로 할 때 같은 A, B, C 집단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자료 1-1> 공공 조직 운영 설문 결과

문항	보기 (1~5의 5점 척도)	응답 평균값		
		A 집단	B 집단	C 집단
공무원이 표준화된 시험에 의해 선발되는가?	전혀 아니다                      중간                      매우 그렇다 1                      2                      3                      4                      5	2.5	3.3	4.4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전혀 아니다                      중간                      매우 그렇다 1                      2                      3                      4                      5	4.5	3.7	2.6
공무원의 연봉은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되는가?	전혀 아니다                      중간                      매우 그렇다 1                      2                      3                      4                      5	2.2	3.1	4.3

<자료 1-2> 각국의 부패지수\*와 정부신뢰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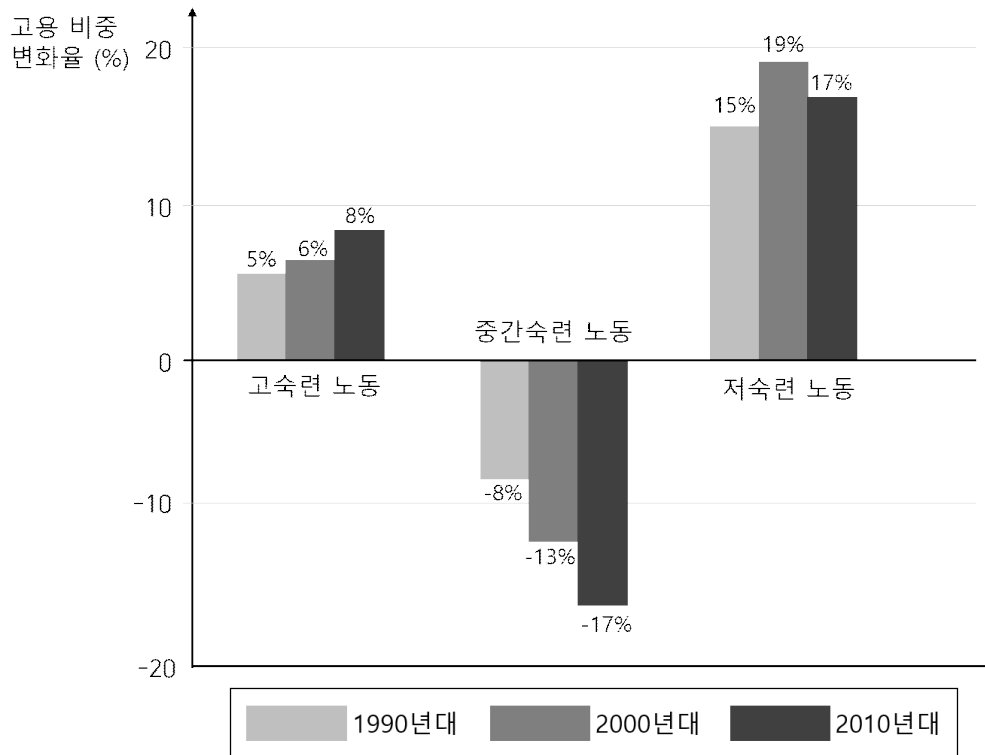
\* 각국의 부패 정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0(매우 낮음)'부터 '1(매우 높음)'로 지수화한 것임

\*\*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도를 '0(매우 낮음)'부터 '1(매우 높음)'로 지수화한 것임

**[자료 2]**

‘인하국’에서는 1990년 이후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산업구조를 지속적으로 개편하였다. <자료 2-1>은 인하국의 노동 숙련도에 따른 10년간 집단별 고용 비중 변화율을 시기별로 정리한 그림이다. <자료 2-2>는 같은 노동집단별 실질 평균 소득을 시기별로 비교한 표다.

<자료 2-1> 시기별 노동 숙련도에 따른 고용 비중 변화율\*



\* 1990년의 고숙련, 중간숙련, 저숙련 노동의 고용 비중은 각각 10%, 60%, 30%였음

<자료 2-2> 시기별 노동 숙련도에 따른 실질 평균 소득\* 비교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중간숙련 노동자 평균 소득(B) 대비 고숙련 노동자 평균 소득(A)의 배율 (=A/B)	1.4	2.5	5.3
중간숙련 노동자 평균 소득(B) 대비 저숙련 노동자 평균 소득**(C)의 배율 (=C/B)	0.5	0.6	0.8

\* 평균 소득은 10년간 평균값으로 계산됨

\*\* 저숙련 노동자의 실질 평균 소득은 시기에 따라 변화 없음



**[자료 3]**

<자료 3-1>은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조사한 결과다.  
 <자료 3-2>는 <자료 3-1>의 내용을 상관관계로 분석한 결과다.

<자료 3-1> 각국의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국가	상대평가 등급제*	고등학교 비평준화*	주당 평균 학습시간	교우관계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A	0	1	56	7.2	6.4
B	0	0	36	6.6	6.7
C	0	0	44	8.3	7.0
D	1	1	62	3.9	4.7
E	1	1	78	3.7	1.5
F	1	0	58	5.0	5.4
G	0	0	33	8.1	6.8
H	1	1	54	5.6	5.7
I	0	0	58	4.3	4.0
J	1	1	70	2.5	3.8
K	0	0	64	6.0	4.7
L	1	1	86	5.8	1.5
M	0	0	60	7.4	4.4
N	1	1	75	4.4	5.6
O	1	1	70	3.3	2.2

\* '0'은 미실시, '1'은 실시를 의미함

\*\* '0(매우 불만족)~'10(매우 만족)'의 응답을 평균한 값임

<자료 3-2> 조사 항목 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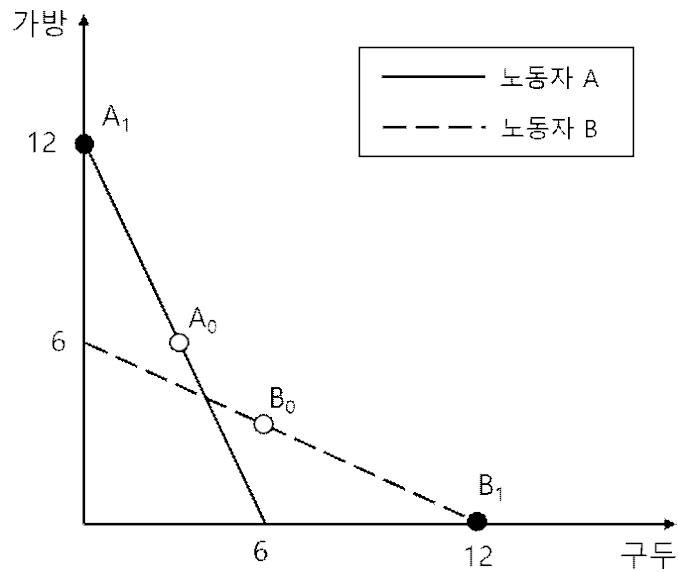
	상대평가 등급제	고등학교 비평준화	주당 평균 학습시간	교우관계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상대평가 등급제	1.000				
고등학교 비평준화	0.732	1.000			
주당 평균 학습시간	0.662	0.644	1.000		
교우관계 만족도	-0.738	-0.569	-0.644	1.000	
학교생활 만족도	-0.539	-0.464	-0.831	0.630	1.000

\* 상관관계는 '-1(매우 강한 역(逆)의 관계)~'0(상관관계 없음)~'1(매우 강한 정(正)의 관계)'의 값으로 나타냄

**[자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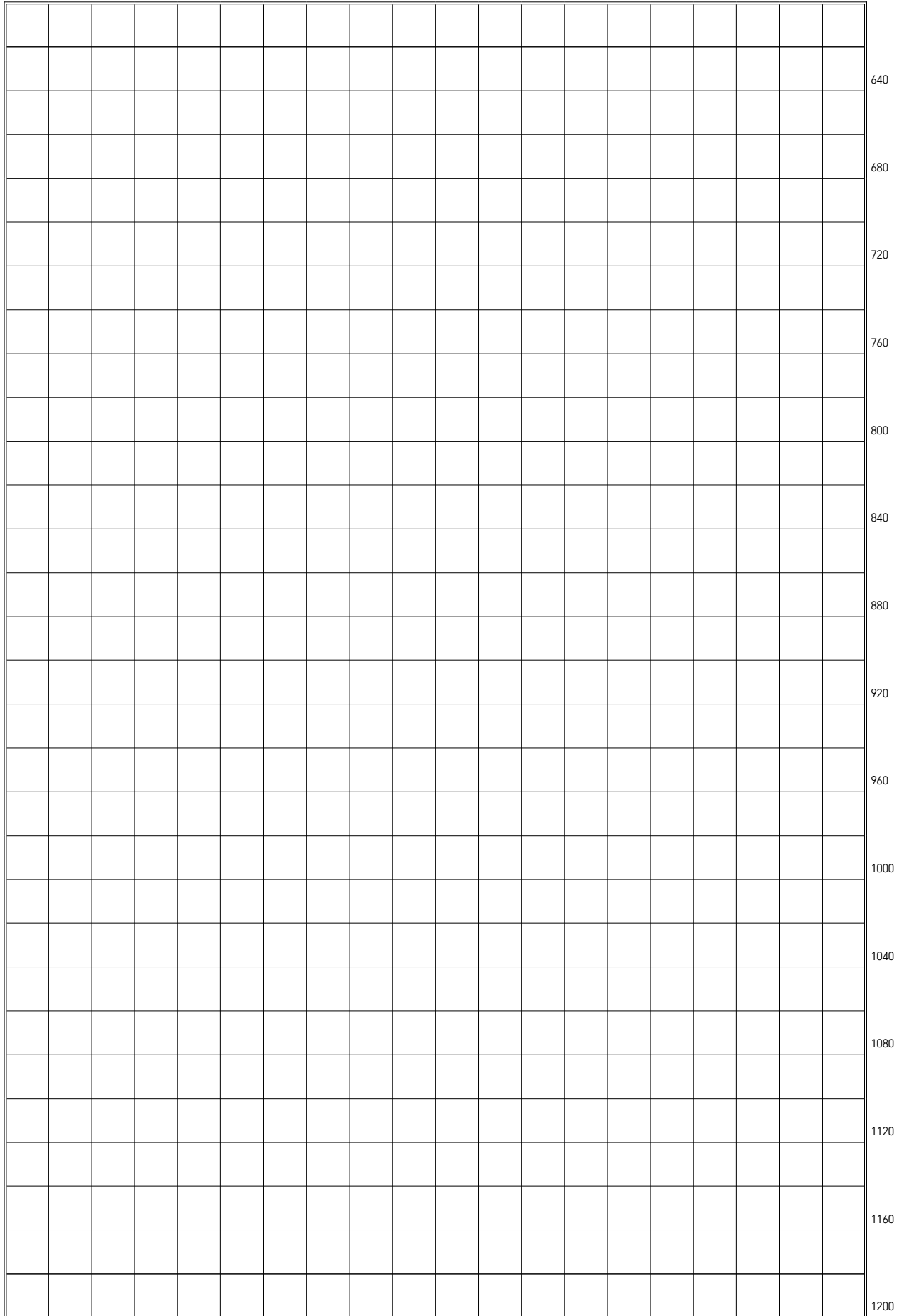
‘인하공방’은 두 명의 숙련된 가족세공인이 구두와 가방을 생산한다. 인하공방의 노동시간은 주당 30시간이며, 각 노동자의 제품별 생산능력은 서로 다르다. <자료 4-1>은 노동자별 주간(週間) 생산 가능곡선으로, 각 노동자가 주어진 노동시간을 배분하여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두 제품의 조합을 나타낸다. 제품별로 동일한 시간을 투입하게 한 작년까지 각 노동자의 생산량은 각각  $A_0$ 와  $B_0$ 에 위치하였다. 제품별 노동시간을 노동자 자율로 정하고 늘어난 생산량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올해에는, 각 노동자의 생산량이  $A_1$ 과  $B_1$ 으로 이동하였다(구두와 가방 1개당 성과급은 동일함).

<자료 4-1> 노동자별 주간 최대 생산 가능 수량









																			1240
																			1280
																			1320
																			1360
																			1400
																			1440
																			1480
																			1520
																			1560
																			1600
																			1640
																			1680
																			1720
																			1760
																			1800